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 추진

도교육청, 교직원 적발실태·설문조사 분석 통한 대책 마련해 교육행정기관에 안내

전북도교육청은 2020년 새학기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실태 및 교직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음주운전 제로화 종합 대책’을 마련, 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사건 처리에 있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맞춤형복지점수 일부를 제외하며, 도교육청 전입이 3년간 제한된다.

또한 기관(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소속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기관장에 ‘주의’ 처분하도록 하는 ‘기관장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고, 출근길 숙취운전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카풀·개인복무를 적극 활용하며 기관내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활용한 아침 숙취운전 예방 직장문화조성 등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중심 ‘자율적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을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교직원 청렴 직무연수 과정에 ‘음주운전 예방’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 감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위행위자에 대한 사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를 의무화 하고, 특히 프로그램 내용에 개인 스트레스 관리, 개인 및 대인관계 상담을 반영해 근본적인 음주운전 예방 및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용섭 감사관은 “각종 범죄 발생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 등 공적영역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교직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 부적응학생·위기학생 지원 강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6기관 지정… 지정식 갖고 운영 방안 공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 부적응학생 및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6기관을 지정, 더욱 촘촘한 교육보호망을 구축해 학교 부적응학생과 위기 학생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6일 오후 3시부터 8층 회의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식을 갖고 위탁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

해 학교 부적응학생, 위기 학생 위탁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예방,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 정체성 확립, 학교 복귀 지원을 돕는 새로운 대안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 날 행사는 ▲위탁교육 지정식 수여식 ▲위탁교육기관 특화교육과정 공유 ▲위탁교육기관 실무 연수 ▲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다.

위탁교육기관 지정기간은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명의 아이라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 보호망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위탁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전주 7곳, 군산 4곳, 익산, 남원, 정읍, 고창 등 모두 16개 기관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스포츠과학센터, ‘2019 고객만족도·인지도 조사’ 전국 2위

전북스포츠과학센터(센터장 이영란)는 2019년 고객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 전국 2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전국 10개의 스포츠과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고객만족도와 인지도, 전환친절도 등 3개 분야로 나뉘 진행됐다. 이에 전북스포츠과학센터는 평균 88.8점을 획득, 광주스포츠과학센터(89.4점)에 0.6점 차로 아쉽게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지도 분야에서는 85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란 센터장은 “전북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과학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센터를 이용하는 선수와 지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우간다 현장 사업 본격화

1억3천만원 규모 농가소득 증진 목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이하 코이카)의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된 바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오는 3월부터 우간다 카바불로 및 엔테베 지역 현장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현장사업은 1억3천만원(11만 2천 달러) 규모로 추진되며, 봉사단은 오는 8월까지 우간다의 농가소득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선발된 14명의 전북대 봉사단원들은 코이카에서 제공하는 국내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9월 우간다로 파견됐다.

지난 5개월 간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농업연구소(Makerere University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in Kabanyoro)와 우간다 농축산부 산하 가축유전자원센터(National Animal Genetic Resources Center and Data Bank) 등에서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우간다 현장사업에서는 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원들이 제안한 ▲미생물을 활용한 퇴비 제조법 전수 사업, ▲원예시설을 이용한 작물 재배법 교육 사업, ▲건조장 개보수 사업, ▲가정용 양계 사육 보급 사업, ▲가축 유전자원 실험실 보수 사업 등 우간다 농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은 우간다 농민 소득 수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영 소장(KOICA 우간다 사무소)은 “전북대 봉사단 사업에 비교 대상 규모의 예산이 배정된 것은 단원들의 사업 발굴 및 기획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라며, “단원들의 활동이 우간다 농촌 지역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연 교수(국제인문사회학부)는 “전북대-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사업은 수원국인 우간다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하현철 단원(고고문화인류학과)은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이 우간다의 문화와 생활풍습을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봉사단 활동이 단원들의 개인적인 역량 개발 뿐 아니라 수원국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한국·아프리카 산업 교류 확대를 위해 KOICA IBS 우간다 농축산 순환형 농가소득 창출사업과 ‘낙농기술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 등을 추진하며 우간다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국내대학 최초로 우간다와 업무협약을 맺어 산학연계형 대학원 과정을 운영, 석사 13명을 배출하는 등 양국의 협력적 교류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